

현장시선



박 양 호  
제주지방조달청장

요즘 경제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회자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경기가 다소 침체되었다는 소식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현재 세계경제가 불황이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샌드위치 여건과 유가급등, 반도체·석유화학제품 가격하락 등으로 무엇보다 대기업이 흔들리는 부분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대기업이 휘청거릴 때 이런 틈새를 메워 줄 강력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다. 올해 수출중소기업수가 전년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 '조달청 벤처나라'

동기 대비 1.1% 증가한 6만1020개사로 수출중소기업이 확대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수출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6%로 독일 9.7%, 미국 5.2%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비중과 규모가 아직도 많이 낮다고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과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신제품은 공공기관에서부터 구매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고,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시장진입이 오래 걸려 결국 혁신기술은 도태되거나 해외 유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달청은 현재 기술혁신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및 기술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위해 국가차원에서 '19년도 정부혁신 6대

역점 추진분야로 '혁신적 공공구매 조달'이 선정되고 '창업·벤처기업 상품 구매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며 국무조정실에서도 구매해줄 것을 각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벤처나라는 초기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전용 쇼핑몰이며, 벤처나라를 통해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MAS(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시장으로 진입을 돕고 국내 수요기관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공공테스트베드사업)은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혁신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수요기관에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피드백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년에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과 국민생활문제 및 미세먼지

저감분야에서 시범구매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신성장 산업으로 대상 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정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지방조달청은 도내 여러 업체들과 '벤처나라'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지원을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적으로 청년 및 주부 등 도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가 희망의 사다리로 기억되길 소망해 본다. 또 먼훗날 도내 우수한 기술혁신 제품들이 많이 탄생하고, 조달청 '벤처나라'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더욱 성장하여 많은 이윤이 창출되고, 이를 통해 고용이 늘어나고 또다시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등 제주도의 경제가 지금보다 화려하고 눈부신 유쾌차처럼, 달콤하고 풍성한 감귤처럼 결실을 맺어가길 응원하고 기대한다.

열린마당

기초질서 지키기는 양심을 지키는 것



문 미 석  
제주시 도동동주민센터

공공장소 및 담벼락, 전봇대 등에서 종종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주차금지' 같은 알릴 문구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러한 문구를 붙였을까. 그러나 문구들의 외침이 무색하게 이러한 문구들이 쓰이는 곳마다 쓰레기가, 담배꽂이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구를 보면 '여기엔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인식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겐 그 기초적인 인식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기초질서 의식의 상실이다. 기초질서는 우리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동규범이다. 우리 생활에서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보이

는 일탈이 하나, 둘 쌓여 오늘날 생각지도 못한 '기초질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약속인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와 다른 기초를 재정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이다. 지금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작은 일탈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무질서, 불법, 탈법, 이기주의 등으로 이어져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 또한 사회의 무질서가 고스란히 개인의 생활, 나아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초질서는 건전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바탕이며, 사회 구성원 각자가 지켜야 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어제까지 기초질서가 무의식적으로 실천됐던 것이지만, 오늘 지금부터는 기초질서 습관이 몸에 배일 때까지 의식적으로 실천해보자. 아이들에게도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않기', '불법주정차 않기' 등 사회의 근간이 되는 기초질서를 나부터 생활화해보는건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지역 안배 아닌 당당히 겨룬 성과"

의회 일정 축소 괜찮나

○...제주도의회의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제주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변경안을 의결. 도의회는 "언론사 취재 현실을 감안하고 도민 알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제373회 제1차 정례회(1일 축소)'와 '제374회 임시회(1일 앞당김)' 일정을 조정. 주변에서는 "결국 본회 일정에서 '금요일'이 빠져 주 4일제가 된 것 아니냐"며 "하루가 줄어든 만큼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이소진기자

합덕 불룩공장 재심 청구 예정

○...지난 1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천읍 합덕리 시멘트 불룩공장 건축 허가와 관련해 입지 제한시설 재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고회법 제주지사가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 고 시장은 16일 제주시청 기자

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갑사위는 불룩공장이 포함된 산업 표준분류표를 보고 폐수배출시설이라고 확정지었다'고 지적. 이어 "불룩공장이 그 분류에 속하지만 사실 폐수배출시설이 아니어서 재심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선언. 김현석기자

영상진흥원 공모 잇단 선정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전국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고무적인 분위기. 진흥원은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지역기반형 음악장작소, 제주 콘텐츠 코리아랩, 제주 웹툰캠퍼스 조성 사업을 연달아 마쳤고 지난 15일엔 이번엔 처음 공모한 지역영화장작스튜디오 구축 사업에 선정. 지방비를 합쳐 올해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만 총 70억원이 넘는 데 진흥원 관계자는 "지역 안배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와 당당히 겨뤄 거둔 성과"라고 설명. 진선희기자

사설

제주관광 좀먹는 불법 유상운송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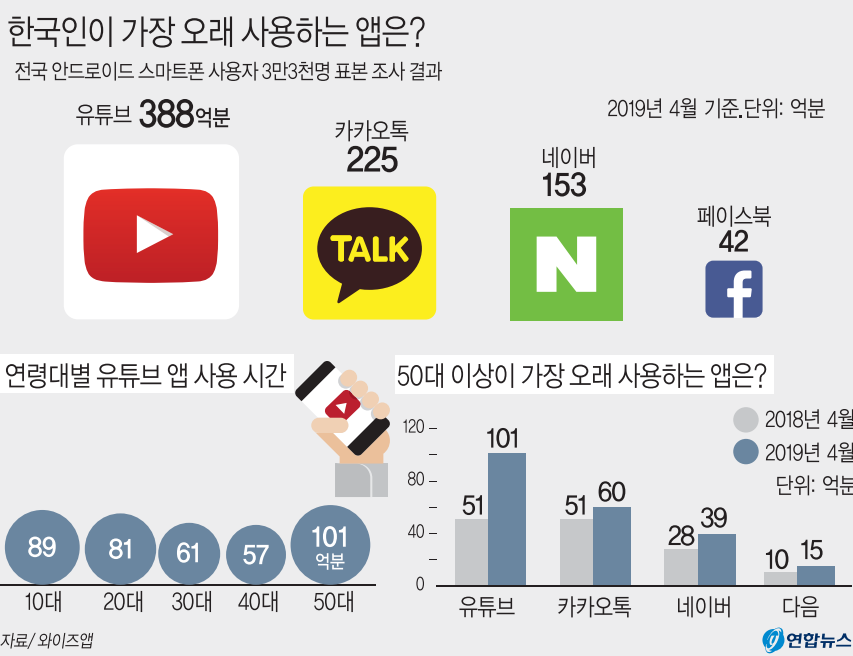
불법 유상운송이 제주관광의 또 다른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시장에서 무자격 가이드 고용만큼이나 불법 유상운송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도 불법이지만 운송료로 받는 운임이 저렴해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제주관광의 질도 떨어뜨리고 있어 우려됩니다.

본보가 지난 15일 관광사법 합동단속반과 함께 동행한 취재에서 이같은 불법 유상운송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자치경찰단으로 꾸려진 관광사법 합동단속은 동부지역 대표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이렇듯 불법 유상운송이 이뤄지고 있는지 10분 만에 불법 유상운송 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승합차에 중국인 관광객 4명을 태우고 관광지를 돌아다니던 A(55)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다. 불법이기 때문에 운행 도중 사고 발생해도 관광객들은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유상운송 사례는 2016년 5건에서 2017년 14건으로 3배 가량 늘었습니다. 올해에도 4개월새 9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관광지 한곳에서 A씨를 포함해 여행사 법인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한 또 다른 관광사범 등 모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모두 1시간 만에 적발될 정도로 불법 유상운송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불법 유상운송은 자가용으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지로 실어나른 B씨(52·여)와 C(60)씨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행사를 통해 관광객을 소개받은 뒤 렌터카를 임대해 불법으로 관광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챗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관광은 실제에 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가족이나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관광의 구조적 문제를 저가관광과 직결되는만큼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

그래픽 뉴스



**부 고**  
김우길(前 제주특별자치도 근무) 어머니 **니주김씨 계생(향년 97세)**께서 서기 2019년 5월 16일 07시 35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5월 17일(금)  
▶발인일시: 2019년 5월 18일(토)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분향실  
▶장 지: 연동 가족묘지  
아들 김우길 며느리 강효선(☎) 현정일 강경숙 딸 현정자 사위 고평호 손자 현기욱 손부 홍승미  
※ 연락처 : 김우길 010-4690-5643 강경숙 010-8003-5143 현정자 010-9383-2333 고평호 010-8649-4074 현기욱 010-2421-5143 홍승미 010-4430-2090 부민장례식장 742-5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순흥안공 호순(향년 9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5월 17일  
아들 안승진 며느리 김태현(영미) 태진 오임순 일진 변연실 딸 안연일 사위 김태진 예진 김익현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회 **SC1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0성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

**계분 판매합니다. (배달 가능)**  
무항생제인증, HACCP인증 받은 자연건조한 계분(산란계)판매  
전 화 : 064-796-6947 핸드폰 : 010-3699-3344  
**신일농장, 제주팜**  
(주소 : 제주시 한림읍 명상로106-7)

**해외농업(개발) (영농조합인, 10명모집)**  
지역 : 베트남(다낭, 팡남)  
사업명 : 한리봉, 레드향 고품질(단감류)  
동남아시아수출 (96만평) 기성.토양.최적지(고소득 창출)  
상담문의 010-9292-6933 농개등 황금농원 010-2699-5572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부전으로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